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권정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45호
서기 2001년 11월 28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옳고 그름 따지느라 삶이 힘들어져

서양서 불교에 관심 많은 까닭

문 불교가 원래 아시아지역에서 시작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번성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겉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불교에 대해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서양에서는 과학과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불교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오히려 우리는 무관심해지고 과학도 더 발달되고 문명도 더 발달했다고 하는 서양사람들은 불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지 스님께서는 해외 포교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을 볼 때 정신과 물질이 같이 돌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합이 합쳐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분의 마음이 항상 이계 율고 이계 그르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불교 아닌 게 없다.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좋은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는데 어디 불교가 한 군데에 국한돼 있는 거냐. 당신네들은 생명이 없느냐. 모두가 불교 아닌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의 발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또 처음에는 무엇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한다면 바로 영구이라고 볼 때, 영구이나 유럽 사람들이 다 그 활력을 불어넣어 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왜 그런가? 아주 고생을 할 때는 고통과 가난으로 인해 자기를 자기가 지키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리드 할 수 없는 그러한 방향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고 나라가 가난한 데다가 그 사람네들은 자기로부터 연구하겠다는 생각이 짙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개발이 된 거고 마음으로부터 개발이 된 거지, 과학자들도 마음으로부터 개발이 된 거지 그 마음 떠나서는 개발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하는 것도 마음이고, 선하게 하는 것도 마음이고, 개발이 되는 것도 마음이고, 과학자들도 다 마음입니다. 그래,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연등을 하나 만드는 데도 요렇게 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땀이 새게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딱 해서 덜 불고 비껴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차만별의 그 마음들이 잘됐다 못됐다 하기 이전에 자기는 자기로부터 안 겁니다. 자기부터 안 겁니다. 이게 바로 정신세계의 통로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 보면 미국인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모두들 철두철미하게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나 가톨릭은 바깥으로 모아 놓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어! 하고 바깥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내 죄를 없애 달라고 그러면서, 즉 말하자면 외부에서 찾고 있죠.

그런데 불가에서는 '일체 만물 만생 응 죽거리는 법이 전부 한 군데서 나고 드느니라. 너부터 알아! 네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무효니라, 없느니라. 네가 나왔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상대가 생기고 이 세상이 벌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벌어진 일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모두 자기 탓이죠? 그런데 자기로부터 풀어나갈 생각은 안하고 꼭 상대로부터 풀어나가려고 하니 안되는 것입니다. 핀트가 맞질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분야의 교수나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받은 학생들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체계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논문 같은 것을 쓸 때 안절부절하고 방황하고 어지럽고 힘든 것을 스님께서 핵심을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논문을 쓸 때도 술술 풀려 나오더라고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도 연구하는 데에 50%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물질 세계로만 연구를 하려니 논문이 써지겠습니까? 반이 보이지 않는 건데 말입니다. 지금 받은 보이고 받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모르니까 논문을

자 주인공하고 대화를 합니다. 물론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가끔 느끼지만 어떤 때는 간절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부러 주인공하고 대화를 안 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나오는 것들을 계속, 네가 됐으니 네가 먹어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요즘 와서 어떤 게 느껴지나 하면 내가 내 생각 속에서만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마음이 허전해지는게 제가 올바르게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답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광대하고 천차만별로 나투는 도리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

그럼 과학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들, 마음으로 하는 건 보다 더 빠르게 단축하는 거고, 지금 과정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지마는 팩시밀리 왔다갔다하고 인공위성 띄워서 모두 전파가 되고 이러는 거까지? 그러면 그거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해서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틀어 박혀서 대화를 했나요? 움직이면서 관하라고 했지? 그리고 뭐가 허전하다는 건지. 믿지 못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지켜보며 관하라 놓는 사람은 윤회 업보 꼬달리지 않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마음공부를 해나 가던 과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수석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됐던 겁니다. 이게 벌써 십여 년 전 얘깁니다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실천을 옮기면서 맛을 알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갑니다. 간혹 그렇게 실천해 가는 분들을 볼 때면 저도 더뵈어 기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사해 하지 마라. 나는 통토만 일러주었을 뿐이고, 당신네들이 믿고 따르고 갔으니 그렇게 당신네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있으며 내가 없으면 당신네들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마음으로 뭉쳐서 실천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 없이 참 착실한 천가 됐다 아니냐? 그러니 한마음에 감사해라.' 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하고 물질문명이 발전했어도 그건 물질 과학이 지 심성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 과학은 한계가 있지만 심성 과학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무한체요. 광대무변하고 묘한 법이기 때문에 세세생생을 가도 손색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심성과학, 심성과학이 아니라면 앞으로 상당히 살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과의 대화 허전해져

문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 법우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바깥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평범하게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 방에 틀어박혀서 저 혼자

하나가 허전하지, 진짜로 믿어 봐 허전한가!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가 있는 거야. 나는 예전에도 그렇게 살아 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 제 놈이 있다면 절도 지을 거고 제 놈이 없다면 못 지을 거냐. 왜? 믿으니까. 그래! 제 놈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제 놈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어떠한 거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야.

네가 허전해 지는 것은 믿지 못하니까 그렇잖아? 왜 자기 끌고 다니는 자기 영원한 친구를 못 믿어? 자기 몸뚱이는 집이야. 자기 영원한 친구의 집이야. 집하고 돌이 아니야. 음식을 풀여 내려면 오븐에 넣어야 풀여내지? 오븐도 집이란 말이야. 음식 해내는 집!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관하는 거야. 네가 진짜 있다면 지금 급한데 너밖에 할 수 없잖아 하고 거기 맡겨놓고 지켜보는 것. 그렇다고 해서 꼭 방안에 들어앉아서 문 걸어 잠그고 지켜보라는 게 아니라. 방안이나 방 바깥이나, 들이나 산이나 똑같은 자리야.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그래서 공부한다고 일부러 뭐 산 속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하는 거는 거추장한 일이야. 산 속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지고 들로 나오면 마음이 달라지나? 마음이 있는 자리는 자기 몸뚱이 있는 자리라고 그냥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으로 올라가니까 점점 더 허전해 지는 거야. 자유스럽지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거창하게 갖다 붙이지 말고 뭐든 자유스럽게 해,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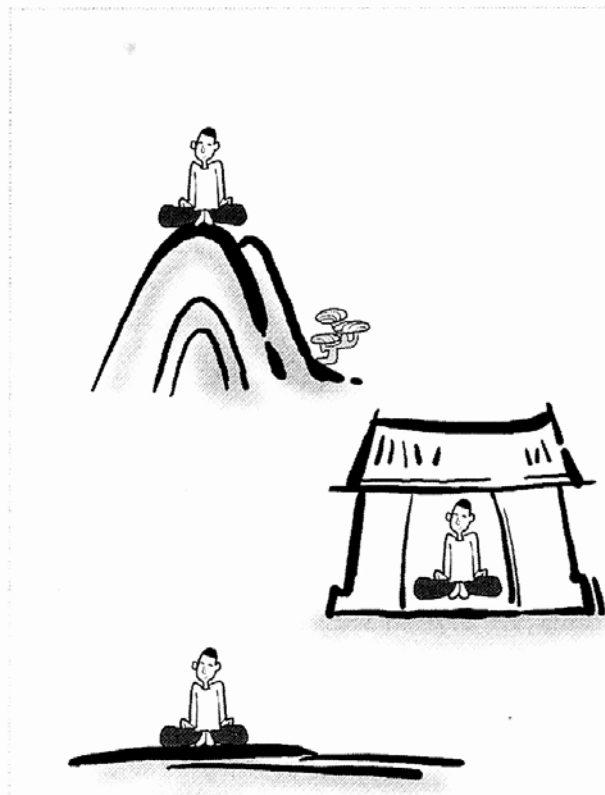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님이 중생 건지고 계신지

문 저는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불경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참선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껏 내 안의 근본과 돌이키게 부처님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돌이키게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미혹한 중생을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 인지요?

답 허허, 항상 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도 부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부처님' 하는 건 어느 개별적인 하나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안팎이 없으면 그대도 부처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부처님은 언제나, 하다 못해 죽어도 살리는 거고 살려도 살리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어느 사람이 정성을 지극히 들었는데 그 이튿날 죽어버렸어요. 아주 가난하고 그래서 강쟁이 되어서 맨날 부도 속을 썩고 그날 몇 번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랬으니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크게 될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집어줄래야 집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 그 이튿날 죽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강쟁 짓을 하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마음을 누워쳐서 어느 스님한테 봤는데, 그 다음날 죽는 것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한 순간에, 도인 스님이라고 그러지만, 도인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도인이야.

그래서 어린애처럼 사는 도인한테 했던 말이에요. 내가 얘기를 하려니까 도인

하는 거지만, 그냥 도독질을 했던지 어떻게 됐던지 좀 모아 놓은 거를 몽땅 다 죽으려고 아예 썩버렸어요. 그분한테. 내가 잘못한 걸 다 용서해 달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곤 다 내뱉어요. 그러구 개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턱 보니까 본래는 그렇게 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서는 걸보고 그냥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죽었으니 어떻게 됐었어? 아마 여기 정성스럽게 다니는 사람이 정성을 들이고 그 이튿날 죽었으면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거기 나갔는데 왜 그 이튿날 죽었느냐, 시주를 그렇게 했는데 왜 죽었느냐' 그럴 테지요.

그래 그렇게 죽으니까 시자가 하는 소리가 '스님, 그 사람은 시주를 해서 지금 불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튿날 죽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아! 이 다음에 알 것이니 가만있어라.' 이러고는 나중에 자기가 깨우치니까 그 도리를 알겠더라 이거예요. '아, 스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아무데 거기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가는데 여러분은 그 도리를 보지 못하는 거 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할 뿐이죠. 전력이 들어오는 거는 못 보듯이, 전구에 불 들어온 것만 보지 전력이 들어오는 건 보이지 않으니 못 보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전력이 흐른다는 건 알고 있고 믿지요?

여러분 자체에 그와 같이 전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자기발전소라고 한다면 내 하나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깃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씩 자기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무진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공부에 몰려서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신다면 지금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의 참다운 뜻을 기필코 알게 되리라 봅니다.

마음이 죽어야 자유인 됩니까

문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마음 공부하는 데는 세간이나 출세간이 따로 없으니 나를 보기 위해서는 나라고 내세우는 이 마음이 무조건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렇게 죽기만 하면 자유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우리가 지금 녹이는 작업을 한다는 것과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이라는 용광로에다 현 쇠든 새 쇠든 토막난 쇠든 전부 거기다 넣어서 녹이는 것이 작업이고, 그게 죽는 공부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용광로에다 넣는 작업을 한다면 재성이 돼서 나가는 거는 정한 이치니까 녹이는 것은 관여하지 말고 무조건 넣고 지켜봐야 해요.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재성이 돼서 나가니까요. 그런데 저게 재성이 될까 안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작업을 한다면 쇠를 넣을 수도 없고 그건 죽는 게 아니지요. 조건이 붙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자유인이 되어야 할 텐데 벌써 자유인이라는 말 자체가 붙는다면 벌써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다 자유인이 아니냐를 떠나서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자고 싶으면 그냥 자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자유스

“
일하는 것도 마음
착한 것도 마음
과학도 마음이니
마음개발이 중요
”

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겠다는 것도 언제쯤으로 기한을 정해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하나도 둘도 하나요 셋도 하나요 만도 하나니까요. 그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처니까 그 하나도 없는 도리를 알면 이 결과도 나두고 저 결과도 나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개구리 속에 들어간다면 내가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또 뱀 속에 들어가면 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뱀의 심리를 알게 되지요. 개구리 속에 들어가니까 개구리 심리를 알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용 땅도 할 수 있고 개구리 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건 전부 중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수억 겁 전부터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 가지고 인간까지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기까지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훌쩍 뒤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고, 미래에 가서 개척도 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이 모든 사람이 옹하는 대로 그 개척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때문에 자유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내 마음이 없고, 어떠한 도량도 내 도량 아닌 게 없고, 어떤 몸도 내 몸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20면으로 계속

가폭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45신 288쪽 6,000원 **어서이름**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